

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

UR협상 이후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에서 3개월여 동안 준비하여 온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지난 6월 14일 보고회가 있었는데 이중 낙농육우산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을 발췌한 것임 - 편집자 주

축산업

축산업의 위치

-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축산물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.
-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
 - 육류 : ('80) 11.3 → ('92) 23.9kg
 - 우유 : ('80) 10.8 → ('92) 44.0kg
- 농업부문에서 차지하는 축산의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음.
- 농업 조수익 중 축산비중 : ('80) 12 → ('92) 20%
- 대부분이 부업형태의 생산구조와 낙후된 유통시설로 인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함.

- 대기업의 축산참여 금지와 사육두수 규제 등으로 인해 경영혁신이 일어나지 못하고 생산비 절감과 기술혁신이 한계
- 도축장 및 도매시장 등의 위생처리시설이 미흡하고, 품질에 따른 차등가격제가 정착되지 못함.

한우산업

실 태

<가격경쟁력> 주요 수출국보다 4~5배 비싼 수준

	한 국	미 국	대 비
• 산지소가격(천원/마리)	2,403	498	4.8배
• 최고기생산비(원/kg)	5,508	1,444	3.8
• 최고기소비자가격(원/kg)	14,170	3,539	4.0

<품질경쟁력> 품질은 수입육보다 좋으나 고급육 유통이 적음.

- * 고급육 비중('93) : 1등급 10.7%, 2등급 49.2%
 - 대부분의 농가가 부업형태로 사육하고 있음.
 - 호당 평균 4마리(5마리 미만 농가수가 전체의 78%)
 - 생산비가 높고 품질고급화를 위한 기술확산 애로
 - 조사료 생산을 기피하고 대부분 볏짚과 배합사료에 의존
 - 도축시설의 낙후와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 미흡으로 고급육 생산노력이부족함.
 - 도축장 가동율 저조(소 : 23%)
 - 위생처리시설의 노후화(현대식 시설 설치지원 26개소)
 - 도체 등급제와 부위별 차등가격제의 미정착

쇠고기 수급 및 소사육 전망

	'92	2004
○ 쇠고기 수급		
- 국내생산(천톤)	100	134
- 수입(천톤)	127	310
- 자급율(%)	44	30
- 1인당 연간 소비량(kg)	5.2	9.3
○ 가격전망		
- 산지소값(만원 /400kg 1마리)	240	140
- 송아지생산비(만원 /마리)	107	72
- 쇠고기생산비(원 /kg)	5,508	3,198
○ 사육두수(천마리)	2,527	2,381
- 호당평균(마리)	4	12
○ 사육농가(천호)	613	195
- 전업농(천호)	4	26
- 전업농사육(%)	8	47
- 영농조합법인(개)	37	300

2004년까지 쇠고기 생산비 41.9% 절감
-kg당 5,508 → 3,198원

<송아지 생산>

- 큰 암소 번식율 향상 : ('92) 86.7→(2004)95.0%
- 경영규모 확대 : ('92) 3.5→(2004) 10마리
- 마리당 노동시간 : ('92) 144→(2004) 75.5시간

<큰소사육>

- 한우개량 및 기술개선으로 발육능력 향상
- 18개월령 체중 : ('92) 477→(2004) 550kg
- 경영규모 확대 : ('92) 9.4→(2004) 100마리
- 마리당 노동시간 : ('92) 143→(2004) 29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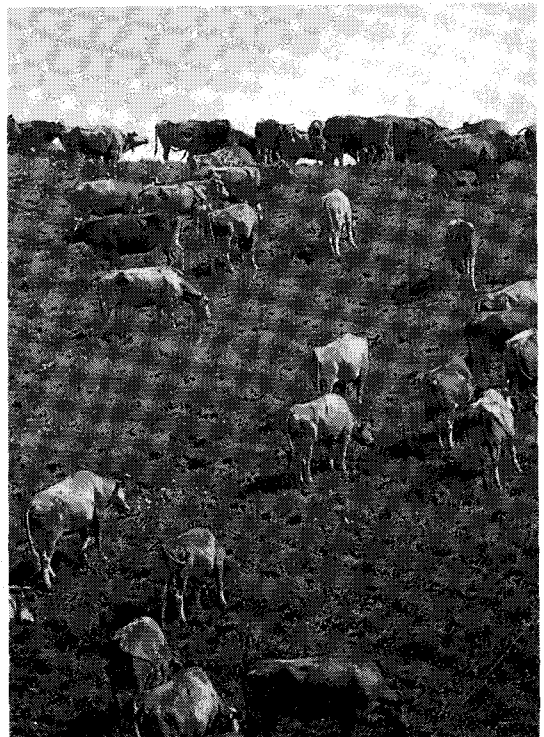
생산비구조 ('92)

송아지	노력비 440(41%)	사료비 299(28)	자본이자 247(23)	기타 84(8)	1,070천원
큰 소	가축비* 1,177(53%)	사료비 453(21)	노력비 309(14)	기타 265(12)	2,203천원

- 송아지는 노력비가 41%로 가장 비중이 큼.
- 큰소는 송아지 구입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

한우 사육농가의 이원화

- 번식우는 조사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부업 농가 중심의 협업조직을 육성(호당 평균 10마리 내외)



○ 비육우는 농후사료 의존도가 크므로 전업형 농가를 육성(호당 평균 100마리 내외)

1. 생산자 단체중심의 송아지 생산 지원

○ 송아지 생산농가들이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이들을 조직화하여 협업에 의한 생산성 향상, 비용절감 및 대외교섭력 강화

- 영농조합법인, 한우번식회 등 자생조직에 의한 협업 경영 유도

- 축사 등 생산기반(공동사육장), 가축관리장비, 조사료생산장비, 컴퓨터 등 지원

- 생산자재 구입, 판매, 방역, 정보교환 등을 공동으로 수행

○ 개량단지를 중심으로 우량 한우 생산기반 구축

- 심사, 등록, 계획교배의 철저 이행(200개단지, 100천두 관리)

- 생산된 송아지에 대한 발육, 번식능력의 조사기록 유지(단지별 PC 보급)

- 번식농가의 규모확대를 위해 조사료 공동생산, 기계화단지 운영

○ 송아지 생산안정대책 추진

- 송아지의 안정적 생산·공급을 위한 송아지 생산기반 유지

2. 한우개량사업의 강화

○ 우리나라의 한우 육용화 개량은 '80년 이후 시작되었으나 아직 개량이 여지가 많음

- 개량효과(♂, 18개월령 체중): ('74) 289kg → ('92) 477

○ 유전능력이 우수한 보증 씨숫소 및 암소의 확보

- 발육능력, 육질 등에 대한 당대 및 후대검정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우수한 씨숫소 확보(당대 검정 100두 → 보증 씨숫소 30두/년 선발)

- 인공수정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우수한 씨숫소의 정액공급 확대

- 암소의 능력을 고려한 계획교배를 통하여 우량 암송아지 생산 유도

○ 한우개량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지원강화

- 혈통등록, 당대 및 후대검정, 가축인공수정등을

지속적으로 추진

- 기술개량 측면에서 수정란이식, 쌍자생산, 체외수정, 난분할, 성감별 등을 위한 첨단기술의 개발
- 기술보급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 및 첨단장비 보급 등

○ 국립종축원이 한우개량 추진의 총괄기능을 담당하여 한우등록 사업과 개량단지 사업을 내실화

- 국내 개량관련 정보 수집·분석, 기관별 업무분담 및 조정 등

3. 한우비육 전업농 3,000호 육성

육성목표

	'92	2004
- 전업농규모 :	30두	100두
- 전업농가수 :	1,190호	3,000호
- 전업농의사육비중 :	11%	50

○ 전업농가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

- 축사, 물과 사료를 주는 장비 등의 자동화 지원
- 호당 2억원 범위내에서 농가계획에 의거 지원

○ 전업농가 중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농가를 선발하여 선도농가로 지정

- 매년 10호씩 총 100호 지정(협업체 20개소는 별도 지정)

· 선도 농가에서는 교육시설, 교육운영비 등 필요 경비 지원

선도농가는 전업농을 지향하는 양축농가의 교육 및 견학장소로 활용

※ 선도농가 선발 기준

- 사육규모 : 100두 이상

- 생체 kg당 생산비 4,000원 이하

- 사육시설, 기술 및 분뇨처리 등에서 다른 농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농가.

4.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확대조성

○ 소 사육 농가들이 초지와 유휴농지를 이용하여 값싸게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기계 공동구입을 지원('93까지: 206개소)

- 부락단위로 30ha 규모의 단지조성(년간 100개소

조성)

- 트랙터 등 농기계구입과 창고 설치자금을 개소당 63백만원씩 지원
- 사료작물 종자 및 비료대 지원

○농기계 이용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정비

- 영세토지를 분합하고 구릉지를 정비하여 토지기반을 평탄하게 정비
- 목장도로의 설치 및 용수개발 등의 기반조성 확대

5. 축산분뇨처리시설의 확충

- 부업농가중 10두이상 사육농가에는 간이정화시설(저장조+건조장) 설치 지원
-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는 정화시설 설치(저장액비화, 퇴비사, 톱밥우사 등) 및 퇴비 처리장 지원
- 한우단지 등 협업체에 대하여는 분뇨 공동저장탱크, 분뇨 운반장비 및 톱밥 제조시설 등 설치 지원
- 분뇨는 유기질 비료로 전환 처리토록 하여 농지에 환원

6.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생산자단체와 민간기업이 경영하는 한우 계열화 사업체 육성

- 도축·가공시설과 계류장, 방혈시설, 부분육가공, 진공포장시설 등 최신시설을 설치
- 시설규모 : 소 100두 / 일(년간 3만두)
돼지 1,500~2,000두 / 일(년간 45~60만두)
- 2000년까지 축산물 종합처리장 10개소 건설
· '94~'96 : 3개소 설치('94예산 192억원)
- 백화점, 슈퍼체인 등 육류판매망을 확보한 유통업체, 축협등의 생산자단체 또는 식품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이 종합처리장 건설 및 운영주체가 되도록 함.
- 종합처리장 중심의 계열화 추진
- 축산물 종합처리장은 양축농가 및 협업체와 연계하여 원활한 원료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함.
- 계열농가에게 사양기술 지도 등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조 유도

- 축산물 종합처리장은 소·돼지를 위생적으로 도축하고, 또한 부분육·냉장육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브랜드화 판매를 적극 추진

7. 쇠고기 품질 차별화

○육류 도체등급제 및 부위별 차등가격제 정착

- 도축 단계에서 등급을 판정하여 육질에 따른 가격차별화 유도
- 양축농가의 고급육 생산의욕 고취 및 소비자의 선택구매 충족
- 고급육 출하 포상금 지원 : A-1 20만원, B-1 10만원 / 두
- 도체 등급제 실시지역을 점차적으로 확대
- ('93. 7. 1) 서울 → ('94. 하반기) 부산 → ('95. 상반기) 기타 직할시
- 소매단계의 등급별·부위별 차등가격제를 백화점, 한우전문판매점 등 선도적인 업소에서 일반 정육점으로 점차적 확대
- 한우전문판매점 설치 확대
- 한우고기의 시장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한 한우전문판매점 설치
- ('93) 101개소→('97) 700개소(판매량의 30~40% 처리)
- 장소 임대, 진열장, 숙성실 등의 설치자금 지원(개소당 2.5억원)
-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쇠고기 브랜드화 유도
- 수입쇠고기의 한우둔갑 방지를 위한 원산지표시 의무화 및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지급
- 젓소고기의 한우둔갑 방지를 위한 도축검사 도장의 색깔구분
(한우 : 적색, 젓소 : 청색)

낙농산업

실 태

- 낙농업과 낙농관련 산업은 짧은 기간동안 급속히 성장
- 1인당 우유소비량 : ('80) 10.8→('92) 44.0k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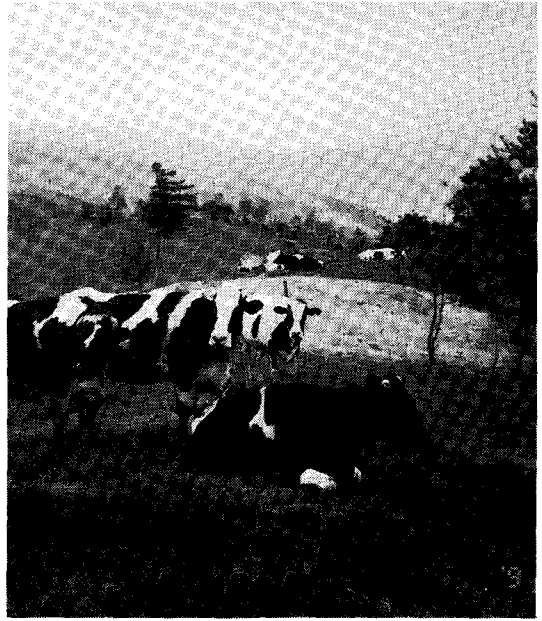
-유가공 산업규모('91) : 매출 2조 2천억원, 종사 인구 15천명

우유 생산비 비교

	한국	미국	대비
○ 생산비(원/kg)	428	232	1.8배
- 사료비(원/kg)	174	122	1.4
- 노력비(원/kg)	156	47	3.3

○ 경영규모의 영세성으로 효율은 뒤떨어짐

- 호당 경영규모 : 한국 20, 일본 38, 뉴질랜드 228 마리
- 초지조성에 의한 양질의 조사료 확보보다 볏짚 등 저급 조사료 의존도가 높음.
- 축사시설이 낙후되고, 목장진입로 등이 미비



우유 수급 및 젖소사육 전망

	'92	2004
○ 우유수급		
- 국내생산(천톤)	1,850	2,931
- 수 입(천톤)	70	1,062
- 자급율(%)	96	73
○ 사육농가(천호)	28	15
- 전업농(30마리이상)	3.7	12
○ 사육두수(천마리)	508	610
- 호당평균(마리)	18	41
- 전업비중(%)	33	75
○ 경영지표		
- 마리당 우유 생산량(kg)	5,624	7,000
- 젖소 번식간격(월)	14.4	13.5

2004년까지 우유생산비 38% 절감
-kg 당 428 → 264원

○ 젖소개량과 기술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

- 마리당 우유생산량 : ('92) 5,624 → (2004) 7,000kg
- 큰암소 번식간격 단축
- 번식간격 : ('92) 14.4 → (2004) 13.5개월
- 경영규모 증대에 의한 노동시간 절감
- 마리당 노동시간 : ('92) 259 → (2004) 147시간

우유생산비 구조('92)

사료비	노력비	자본이자	기타	계
17,428원/100kg (41%)	15,575 (36)	8,431 (20)	1,398 (3)	42,832 (100)

-사료비, 노력비가 생산비의 77%를 차지

경쟁력 강화대책

1. 전업 낙농가 육성 및 축사시설 자동화
- 2004년까지 30마리 이상 규모의 전업농가 12천호 육성
 - 총 젖소 마리수의 75% 사육
 - 전업농가 중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농가를 선발, 선도농가로 지정(매년 10호 내외, 총 100호)
- 낙농의 전업규모에 필요한 시설자동화 지원
 - 현대식 축사, 자동으로 먹이와 물주는 시설 및 분뇨 처리시설
 - 조사료생산, 도로, 용수, 목책 등 사육기반 시설
 - 위생적인 우유생산을 위한 자동으로 젖짜는 장치와 냉각시설 등
- 규모화·집단화된 낙농단지 조성
 - 호당 3억원 범위내에서 단지별 참여농가,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

2. 젖소육성우 목장 설치 지원

○우유생산이 시작되기까지의 송아지 육성을 위한 목장 설치 유도

- 낙농협업체, 낙농조합 등이 젖소송아지를 농가로 부터 위탁받거나 구매하여 전문적으로 사육, 계획교배한 후 젖짜기 직전 농가에 반환 또는 판매
- 농가의 시설, 토지, 노동력 부담 경감
- 농가의 착유우 규모 확대 및 착유우 전문사육 유도

○지원계획 : ('93) 2개소 → ('97까지) 25개소(개소당 300두 사육기준)

- 토지, 조사료 이용 가능 조합부터 우선 지원
- 개소당 초지 40ha이상 확보토록 5억원씩 지원

3. 젖소개량 활성화 및 기술개발

○젖소개량사업의 확대

- 젖소 산유능력 검정에 의한 암소 개량
- 검정확대 : ('93) 착유우의 5%(15천두) → (2001) 40%(170천두)
- 검정조합에 전문가, 검정장비 등 지원('93기준 40억원)

-보증 씨숫소 선발

- 국립중축원, 축협 유우개량사업소에서 검정 및 선발업무 수행
- '94년 이후 매년 국내산 보증종모우 정액 생산 공급

○수정란이식 기술자 양성으로 젖소개량 촉진

- 국립중축원, 축산시험장, 축협 한우개량사업소 등에서 희망자 선발 교육

4.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확대 조성

○소 사육 농가들이 농기계를 공동으로 구입, 초지와 유흥농지를 이용하여 값싼 조사료를 생산함으로써 사료비 절감

- 부락단위로 30ha 규모의 단지조성(년간 100개소 조성)
- 트랙터 등 농기계와 보관창고 설치자금을 개소당 63백만원씩 지원
-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및 비료대 지원

○농기계이용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개선 추진

- 영세토지를 분합하고 구릉지를 정비하여 토지기반을 평탄하게 정비
- 목장도로의 설치 및 용수개발 등을 통한 조사료의 생산성 증대
- 뗏짚을 기계로 수거하여 값싼 조사료로 활용

5. 낙농전문 헬퍼(helper) 사업 지원

○가족노동력으로 경영하는 전업낙농가의 연중무휴 강도 높은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기 위하여 낙농헬퍼조직 육성

- 전문교육을 받은 헬퍼가 농가의 요구시기에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목장의 사양관리를 대행

○차량등 장비와 정상 운영시(3년차)까지의 인건비 등 일부 보조

	'93	'97	'2001
헬 퍼 조 직	14조	80	120
이 용 농 가 수	921호	4,000	6,000
전 체 농 가 대 비	3.3%	19	35

※('94) 19개조('94 신규조직 5개조 포함) 운영, 1조당 헬퍼 2명 헬퍼 1인당 1년차는 월 50만원, 2~3년차는 월 25만원 지원

6. 우유, 유제품 유통개선

○원유의 집유를 축협으로 일원화(낙농진흥법 개정)

- 같은 지역내 업체별 중복집유를 막아 유통비용 절감

○시유의 가정배달을 슈퍼, 직판점 유통 위주로 전환

- 유업체의 직판점 운영, 슈퍼체인 등에 대한 직공급 유도

- 유업체간 과잉경쟁 방지를 위한 연합대리점 형태 운영 유도

○지역별 낙농조합의 시유생산 지원

- 시유의 광역 유통체계를 지역 유통체계로 전환
- 지역낙협과 유업체와의 OEM방식에 의한 생산 유통

- 대리점 없는 유통체계로 민간유업체와의 경쟁력 강화